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한국쌀전업농 예천군연합회에 기부물품 전달

윤혜진 기자 | 승인 2026.08.04 15:14

[국제아이저널 = 경북 윤혜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사장 곽승채)는 8월 4일(화) 지사에서 폭염에 노출된 지역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경상북도 예천군연합회에 무더위 예방 물품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한국쌀전업농 예천군연합회에 기부물품 전달©국제저널

이번 나눔 행사에서 예천지사는 약 160만원 상당의 무더위 예방용품을 전달했으며 전달된 물품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이 많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곽승채 지사장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야외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는 지역 사회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윤혜진 기자 ijj@ijj.co.kr